

## 억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20·30대를 중심으로\*

전 예 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석사

김 은 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억울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억울의 4가지 특성(인지, 정서, 행동, 신체)을 반영하는 47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억울 척도는 15문항, 3개 하위요인(‘정서/신체적 반응’, ‘부당성 인식’, ‘회피적 행동’)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억울 척도의 수렴, 변별 및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억울 척도는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화병 척도, 외상 후 율분장애 척도와 모두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억울 척도의 증분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억울 척도는 종속변인(화병, 외상 후 율분장애)에 대한 상태-특성 분노와 부적 정서의 설명량 외에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상담에 대한 시사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억울, 억울 척도, 척도개발, 타당화, 신뢰도

\* 본 연구는 전예슬(2020)의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억울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은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율곡관 508호  
Tel : 031-219-2787, E-mail : eunkim@ajou.ac.kr

최근, 한국 사회에는 ‘수저계급론’, ‘삼포 세대’, ‘순실증’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불공정성, 사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유명순, 2016). 예를 들어, 일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의 한국인이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닐슨 코리아, 2017). 한국인들이 지각하는 불공정성 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높은 편인데, 이는 협력과 협동에 대한 거부, 사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적 태도, 권위에 대한 불복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통계개발원, 2018). 또한 불공정성은 심리적 적응의 지표인 자존감, 행복감, 희망감,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부적응의 지표인 상대적 박탈감, 학습된 무기력,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하, 전주원, 2019).

여러 문화심리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은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상황(예. ‘부당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분노와 더불어 억울이라는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명순, 2019; 정재욱, 김영주, 김보경, 나진경, 2019; 한민, 류승아, 2018). 이를 반영하듯, Naver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 ‘억울하다’로 검색되는 기사가 651,739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분노하다’ 관련 기사 1,256,769건, ‘불안하다’ 관련 기사 3,095,548건에 비해 적지만, ‘슬프다’(493,400건), ‘우울하다’(636,740건), ‘좌절하다’(515,223건) 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인들이 빈번하게 억울을 느끼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억울’은 한자로 抑鬱이라 쓰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억눌리고 침울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depression(우울)으로

옮겨지지만 한국인들이 억울을 사용하는 맥락은 우울과는 전혀 다르다(한민, 류승아, 2018). 구체적으로, 억울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억울은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함. 또는 그런 심정’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20). 이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억울이란 개인이 어떤 일이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할 때 느끼는 분하고 답답함을 의미한다(이승연, 2015). 유사하게, 한자(네이버 한자사전)에 따르면, 억울(抑鬱)은 ① 억제(抑制)를 받아 답답함, ② 애먼 일을 당해서 원통하며 가슴이 답답함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여러 연구(서신화, 허태균, 한민, 2016; 이승연, 2015)에서 억울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억울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및 행동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억울의 인지적 특성(예. 상황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억울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어긋났다고 지각하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다(이승연, 2015). 더 구체적으로, 억울 경험에 대해 살펴본 서신화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진의가 타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동일한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부당성을 지각할 때 억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지하는 사례 연구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데 처벌을 받고 공범인 친구와 자신이 공정한 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억울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또한, 김은하

와 장윤지(2015)의 화병 사례 연구에 따르면, 화병 환자들은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신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피해자’라고 지각하면서 억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울의 부당성 혹은 불공정성 인식을 반영하는 인지적 요인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BJW)이라는 개념이 있다. BJW는 세상은 정당하며 누구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zuka & Dalbert, 2002). 선행 연구에 따르면, BJW가 낮을수록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반면 부정 정서, 우울, 화병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김은하, 김수용, 2017; 김은하, 김혜림, 2015; 김은하, 정보현, 2018). 아직까지 억울과 BJW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지만, 억울이 스트레스성 사건에서 주관적인 부당성을 인식함으로써 경험되는 정서(서신화 등, 2016)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억울과 BJW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억울의 정서적 특성을 살펴보면, 억울은 여러 정서가 혼합된 정서이다. 예를 들어, 서신화 등(2016)에 따르면 억울은 크게 ‘타인 초점적 정서’와 ‘자기 초점적 정서’를 동반하는데, ‘타인 초점적 정서’는 억울한 상황을 만든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분노’와 관계적 정서(배신감, 실망감, 서운함)를 포함하는 반면 ‘자기 초점적 정서’는 상황에 관여된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당혹감’(예. 당황, 황당함, 어이없음), ‘불쾌감’(예. 짜증, 속상함, 괴로움), ‘무기력감’(우울, 절망감)을 포함한다. 유사하게, 유명순(2019)은 억울함과 분한 마음

을 함께 느끼는 ‘울분’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서 억울은 부당하다고 지각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분노, 절망감, 무기력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감정 중 분노가 억울의 핵심 감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이승연, 2015), 분노는 주로 대인관계 내에서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특히 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자신의 소망이나 희망을 부당하게 좌절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으로 억울의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억울의 신체적 및 행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억울은 ‘답답함’(‘숨이 막힐 듯이 갑갑함’ 혹은 ‘애가 타고 갑갑함’(국립국어원, 2020), 뭉친 느낌, 몸의 열기, 치밀어 오름, 두통, 입 마름 등의 신체적 반응을 동반한다(Min, 2009).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주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개인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는 억울에는 무엇인가가 억제되고 표현되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이승연, 2015). 이러한 억제는 대인관계 내에서 화목과 조화를 중요시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한국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권정혜 등, 2008), 특히 한국인들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정(예. 분노)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궁호, 김지연, 최경순, 2009). 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서신화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알린 참여자도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화를 억누르는 등의 회피적 행동 혹은 제 3자에게 토로하거나 소극적으로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피나 소극적 대처는 투사(projection)를 유발하여 상대방에 대한 과

도한 혐오감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영진, 안창일, 2003). 즉 분노를 억제하거나 회피할수록 자신의 실수나 부정적인 특성을 부정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과도한 혐오와 불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분노 억제가 역설적으로 분노 경험을 반추하게 하여 억울, 우울, 심혈관계 및 소화계 질환과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서수균, 이훈진, 권석만, 2004; 이경순, 김교현, 200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억울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가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어긋났다고 지각하는 인지적 평가, 분노를 중심으로 좌절, 배신감, 절망감 등의 정서적 경험, 답답함을 중심으로 한 신체적 반응 그리고 회피나 소극적 대처 행동을 포함하는 정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거 일부 학자들이 억울을 한국인이 경험하는 고유의 정서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문화보편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다(서신화 등, 2016). 물론, 문화마다 어떤 상황을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서신화 등, 2016), 억울은 한국 문화적 맥락(예. 집단주의 문화, 감정 억제를 미덕으로 여김)과 상호작용하여 경험되고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억울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관련 연구를 통해 억울이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억울은 한국의 문화 관련 증후군(culture-bound syndrome)인 화병(火病, Hwa-Byung)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은하, 김혜림, 2015).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화병은 부모 관련 스트레스(예. 부모의 불화, 부모의 학대), 남편 및 시대 관련 스트레스(예. 남편의 외도, 시대과의 갈등), 경제적 스트레스(예. 가난, 사기) 등의 외부적인 스트레스 사건에 기인하지만(Min, 2009; Min, Suh, & Song, 2009),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억제, 참기, 양보, 회피 등의 소극적 혹은 회피적인 대처양식을 보여 억울,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화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세준, 배성만, 현명호, 2011; 김민정, 현명호, 2010; Kim, Hogge, Ji, Shim, & Lothspeich, 2014). 또한, 화병 환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외부화를 많이 하고, 타인이 자신을 이해하거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억울, 분함,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구세준 등, 2011; 손상준, 2007; 이호진, 2009; Kim et al., 2014; Min et al., 2009). 유사하게, 권정혜 등(2008)이 개발한 화병 척도에도 억울 경험을 시사하는 문항(‘나는 억울하게 느낀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억울이 화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화병에 대한 연구들처럼 직접적인 연관성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외상 후 울분장애(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 연구들에서도 억울로 시사되는 정서적 특성들을 찾아볼 수 있다. PTED는 독일의 정신의학자인 Linden(2003)이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사건으로 인해 만성적인 울분, 분노,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정신질환이다. PTED가 등장한 배경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동독인들이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지각하며 분

노, 자기비난, 무기력감, 신체적 통증 등의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Linden은 이러한 증상들이 기존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적응 장애로 분류하기 어려운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to embitter’의 사전적 정의는 ‘to make someone feel hate and anger for a long time because they have been treated unfairly (오랫동안 부당하게 취급받아 왔기 때문에 증오 및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로, 울분(embitterment)은 불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상황에서 맞서 싸우고 싶지만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지닌다(고한석, 한창수, 채정호, 2014; 오정현, 2020; 이진수, 2019).

억울이라는 정서가 PTED 관련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억울이 서양에 비해 한국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정서이기 때문이다(한민, 류승아, 2018). 즉 부당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독일인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인들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억울에 덜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nden(2003)이 설명한 PTED의 특성을 고려할 때, PTED의 가장 근원적인 발생 기제는 부당성과 불공정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억울의 인지적 특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울분과 억울은 몇 가지 정서적 특징(예. 분노, 무기력감)을 공유하며, 신체적 증상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이진수, 2019; Joe et al., 2017).

이외에도,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억울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들도 보고되었다. 특히 한국 문화에 적합한 상담이론을 탐색한 이장호, 김정희(198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내담자들은 ‘적개심’이나 ‘분노’ 보다는 억울을 포함한 ‘한(恨)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을 탐색한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2008)의 연구에서는 상담 초기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억울을 먼저 알아주는 것이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상담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억울 집단의 심리극 경험분석을 실시한 박희석(2005)의 연구에서도 억울함, 분노 감정을 표현한 내담자가 정서적 후련함 및 증상 완화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억울이 한국인에게 중요한 정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억울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경험적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억울 수준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가 없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이승연(2015)과 서신화 등(2016)이 한국인의 억울 관련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관련 척도를 개발하였지만 이 척도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기존의 억울 척도들은 문항에 이미 ‘억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억울 자체보다는 억울을 경험한 상황에 대한 기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억울의 다차원적 속성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승연(2019)이 개발한 ‘억울함 상황 기술문’ 척도는 참여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예.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나의 업무 성과가 승진이 누락된 선배의 성과가 되었다. 그리고 선배는 그것으로 인해 승진하였다’)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는지 혹은 ‘화남’을 느끼는지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서신화 등(2016)이 개발한 억울 척도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울

하다’, ‘어쩌다 한 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억울하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기존의 척도의 한계점은, 이 척도들에 대한 요인분석이나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인구조나 타당도 측면에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의식과 이로 인한 상실감 및 열패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억울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서신화 등, 2016), 억울에 대한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억울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억울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 그리고 억울과 관련한 개념(예.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화병, 울분)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억울의 구성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억울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년층이 지각하는 불공정성과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및 억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하고, 공정성 인식과 삶의 만족도간의 정적 관계가 중노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강하기 때문이다(김나영, 2020; 김재우, 2019; 박선경, 이내영, 2019). 즉 20·30대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어긋나는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억울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세부 연구(예비연구, 본 연구)로 구성되었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억울 척도는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었는가? 둘째, 억울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

한가? 셋째, 억울 척도의 수렴, 변별 및 준거 타당도는 어떠한가? 넷째, 억울 척도의 증분 타당도는 어떠한가? 아직까지 억울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억울이 분노를 포함한 다른 부정적인 정서(예. 좌절, 슬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승연, 2015; 서신화 등, 2016)을 고려하여,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부적 정서 척도를 통해 억울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고, 정적 정서 척도를 통해 억울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억울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화병, 외상 후 울분장애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김은하 등, 2017; 김은하, 김혜림, 2015; 한민, 류승아, 2018; Lee, Wachholtz, & Choi, 2014)를 토대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화병 척도, 외상 후 울분장애 척도를 통해 억울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억울 척도의 증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및 부적 정서를 통제된 후, 억울 척도가 화병과 외상 후 울분장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 예비연구

예비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김은하, 김혜림, 2015; 김은하 등, 2017; 이승연, 2015; 서신화 등, 2016; 한민, 류승아, 2018)의 결과를 토대로 억울 척도의 예비문항을 구성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수도권 소재의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 및 관련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27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크기의 일반적인 기준은 없으나(Hogarty, Hines, Kromrey, Ferron, & Mumford, 2005), 200명~250명 이상이면 적당하다는 근거(Comrey & Lee, 1992)를 참고하여 참여자 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98명(35.9%), 여성이 175명(64.1%)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20.8세( $SD=2.30$ )였다. 참가자들의 전공은 공학계열 29명(10.6%), 인문계열 21명(7.7%), 상경·사회계열 211명(77.3%), 의학·자연계열 12명(4.4%)이었다. 학년의 경우, 1학년 89명(32.6%), 2학년 65명(23.8%), 3학년 57명(20.9%), 4학년 59명(21.6%), 5학년 이상 3명(1.1%)이었다.

## 연구절차

### 억울의 구성요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억울은 크게 인지적, 정서적, 신체 및 행동적 특성을 지닌다(이승연, 2015; 서신화 등, 2016; 한민, 류승아, 2018). 먼저, 억울은 책임 소재가 ‘부당하게’ 혹은 ‘불공평하게’ 자신에게 귀인되었다고 해석할 때, 자신의 진의가 타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공정한 평가나 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지각할 때 나타난다(인지적 특성). 둘째, 억울은 ‘자기초점적 정서’(당혹감, 불쾌감, 무기력감)와 ‘타인초점적 정서’(분노, 배신감, 실망감, 서운함)가 혼합된 정서이다(정서적 특성). 셋째, 억울은 ‘답답함’과 관련한 ‘숨막힘’, ‘몽친

느낌’, ‘치밀어 오름’, 소화 불량, 두통, 입 마름 등을 동반하며(신체적 특성), 소극적이거나 회피 및 억제 행동과 관련이 있다(행동적 특성).

### 예비문항개발

상담심리전공 석사 과정 대학원생 1인과 상담심리전공 교수 1인이 총 60개의 기초 예비문항을 개발하였고, 총 5명의 상담실무자들과 교수진들이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기초 예비문항은 인지적 요인 29문항, 정서적 요인 15문항, 신체적 요인 6문항, 행동적 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적절성은 각각의 문항이 억울의 구성개념을 잘 반영하는지, 문항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일반인들이 응답하기 용이한지, 용어의 사용이나 표현이 적절한지 등을 기준으로 두 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1단계 내용타당도 검증에서는 상담분야에서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심리사이자 심리학 박사 3인이 5점 척도(1=전혀 적절하지 않다, 5=매우 적절하다)로 평정하였다. 그 결과, 2인 이상이 2점 이하(조금 적절하지 않다)로 평정한 문항은 없었지만,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7개의 문항을 수정하였다(예. ‘얼굴에 열이 오르고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이 있다’ →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르고 가슴속에 열이 차 있는 것을 느낀다’, ‘진심을 말해도 어떠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 ‘진심을 말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2단계 내용타당도 검증은 정서 전문가인 상담심리전공 교수 2인에 의해 1단계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내용이 모호하거나 중복된다는 문항 그리고 2인 모두가 2점 이하(조금 적절하지 않다)로 평정한 문

항을 삭제(예. ‘칭찬을 기대한 상황에서 도리어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다’)하거나 수정(예.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를 내가 떠안아서 피해를 본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적이 있다’)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억울 척도의 예비문항은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평소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4=완전히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인지적 요인 19문항, 정서적 요인 12문항, 신체적 요인 7문항, 행동적 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자료분석

주축요인추출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하위요인 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사각회전 방식 중 직접 오블리민 방법을 적용하여 요인을 회전시켰다. 또한 억울 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를 살펴보았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측도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 측도는 .889, 구형성 지표는  $\chi^2=6060.647(p<.001)$ 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Mardia's test를 실시한 결과, 자료가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축요인법과 직접 오블리민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eigenvalue), 스크리도표, 평행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고유치>1을 충족하는 요인은 6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크리도표는 세 번째 요인 이후부터 평평한 기울기를 보였고, 평행분석 결과도 3요인 이후에 무선적 자료의 고유치가 실제 고유치보다 크게 나타나 3요인의 존재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해석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요인 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수를 3개로 고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 절대값 .30 이하, 둘 이상의 요인에서 .30이상, 그리고 요인 간 부하량 차이가 .10이하인 32개 문항이 제거되었다(Costello & Osborne, 2005). 따라서, 32개 문항을 삭제하여 15개 문항이 남게 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요인 1은 총 6문항으로, 억울과 관련한 정서(예. 우울, 무기력, 서글픔, 심적으로 괴로움, 자신에 대한 연민)와 신체적인 반응(예. 가슴이 답답함, 눈물)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정서/신체적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5.28로 전체 변량의 35.22%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총 6문항으로,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예. 책임을 부당하게 떠안거나,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진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를 받았다고 지각함)를 반영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부당성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65로 전체 변량의 11.00%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총 3문항으



표 1. 억울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273)

문항	요인			요인별 문항- 전체상관
	1	2	3	
<b>요인 1: 정서/신체적 반응(6문항)</b>				
나는 서럽고 심적으로 괴롭다.	.859	-.027	.018	.796
내 인생이 서글프게 느껴진다.	.857	-.034	-.029	.768
나는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840	-.059	.031	.775
나는 나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817	-.041	-.030	.740
나는 계속 가슴이 답답하다.	.609	.164	.029	.657
나는 자꾸 눈물이 난다.	.587	.150	.014	.624
<b>요인 2: 부당성 인식(6문항)</b>				
남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나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021	.806	.022	.711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적이 있다.	-.012	.686	-.027	.620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부당한 이유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다.	.042	.683	-.001	.629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 질책을 받은 적이 있다.	-.029	.668	-.080	.575
나는 불합리하게 나의 성과를 빼앗긴 적이 있다.	.036	.610	.096	.594
진심을 전달했지만 상대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은 적이 있다.	.085	.607	.077	.601
<b>요인 3: 회피적 행동(3문항)</b>				
나는 상대방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지 못한다.	-.087	-.039	.944	.707
나는 매우 화가 나지만 불이익을 당할까봐 화를 참는다.	-.015	.150	.675	.617
나는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한다.	.102	-.068	.606	.552
eigenvalue	5.280	1.650	1.400	
공통분산(%)	35.220	11.000	9.310	
누적분산(%)	35.220	46.220	55.530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907	.858	.788	

로, 회피적 행동 경향성(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는 양상)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회피적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40으로 전체 변량의 9.31%를 설명

하였다. 각 요인의 전체 점수와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들의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모두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unnally & Bernstein, 1994).

##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에서 도출된 3개 하위요인, 15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수렴, 변별, 준거 및 증분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대학교, 평생교육원, 중소기업 등의 협조를 얻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 3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 62명(20.2%), 여성 244명(79.5%), 기타 1명(0.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29.1세( $SD=8.11$ )였다. 참가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 109명(35.5%), 취업준비생 43명(14%), 직장인 111명(36.2%), 사업자 및 자영업자 14명(4.6%), 기타 30명(9.8%)이었다. 참가자들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 2명(0.7%), 고등학교 졸업 71명(23.1%), 대학교 졸업 149명(48.5%), 대학원 졸업 74명(24.1%), 기타 11명(3.6%)이었다.

### 측정 도구

#### 억울 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억울 척도는 참여자가 억울을 얼마나 경험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15문항(‘정서/신체적 반응’ 6문항, ‘부당성 인식’ 6문항, ‘회피적 행동’ 3문항)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4=

완전히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억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총점 .90, ‘정서/신체적 반응’ .91, ‘부당성 인식’ .86, ‘회피적 행동’ .80으로 나타났다.

####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억울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Watson, Clark, Tellegen (1988)이 개발하고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많이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적 정서 혹은 부적 정서를 높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에서 정적 정서에 포함되는 ‘기민한(alert)’ 문항은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모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은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9문항과 부적 정서에 해당하는 10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부적 정서 문항은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반면, 정적 정서 문항은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 한국판 PANA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정적 정서 .84, 부적 정서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 .88, 부적 정서 .90으로 나타났다.

#### 상대-특성 분노 표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억울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Spielberger(1988)가 개발하고 한덕웅, 전경구,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4문항으로, 크게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표현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노 표현은 다시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통제로 구분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상태 분노 10문항, 특성 분노 10문항, 분노 표현 중 분노 억제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제를 높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덕웅 등(1997)의 연구에서 한국판 STAXI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상태 분노 .93, 특성 분노, .84, 분노 억제 .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상태 분노 .95, 특성 분노 .84, 분노 억제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억울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Lucas, Alexander, Firestone, Lebreton(2007)이 개발하고 김은하 등(2017)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Korean Version of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총점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

의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함을 의미한다. 김은하 등(201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 화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억울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권정혜 등(2008)이 개발한 화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4=완전히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화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정혜 등(2008)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 외상 후 울분장애 자기 평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억울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Linden, Baumann, Rotter(2009)가 개발하고 신철민(2012)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외상 후 울분장애 자기 평가척도(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Scale; PTED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각 문항은 지난 1년 동안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대한 울분 반응을 5점 척도(0=전혀 아니다, 4=아주 많이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오랜 기간 울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 2.5점 이상이면 울분으로 인한 심한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Linden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3, 한국판의 내적 일치도는 .9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한 3요인 모형(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후, 1요인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억울 척도의 수렴, 변별 및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억울 척도와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정적 및 부정 정서 척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화병 척도 및 외상 후 율분장애 자기 평가 척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억울 척도의 증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화병과 외상 후 율분장애 척도에 대해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및 부정 정서를 통제한 후 억울 척도의 추가적 설명량을 살펴보았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예비연구에서 밝혀진 3요인, 15문항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CFI=.948, TLI=.937, RMSEA=.067로 나타났다.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홍세희(2000)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억울 척도의 3요인 구조는 수용

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쟁모형인 1요인 모형의 경우, 적합도 지수가 CFI=.658, TLI=.601, RMSEA=.168로 나타나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3요인 모형(연구모형)과 1요인 모형(경쟁모형)의 적합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chi^2$ 값의 차이는  $\Delta\chi^2(3, N=307)=295.675(p<.001)$ 로 유의하였고, CFI, TLI, RMSEA 값의 차이도  $\Delta CFI=.290$ ,  $\Delta TLI=.336$ ,  $\Delta RMSEA=.101$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인 3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3요인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66~.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 분석

억울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비교의 준거로 STAXI(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제)와 PANAS(부정 정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억울 척도의 총점 및 3개의 하위요인 모두 STAXI의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TAXI의 분노 억제 하위 척도는 억울 척도의 요인 1(‘정서/신체적 반응’)과 요인 2(‘부당성 인식’)에 비해 요인 3(‘회피적 행동’)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억울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307)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3요인 (연구모형)	206.369	87	.948	.937	.067
1요인 (경쟁모형)	870.675	90	.658	.601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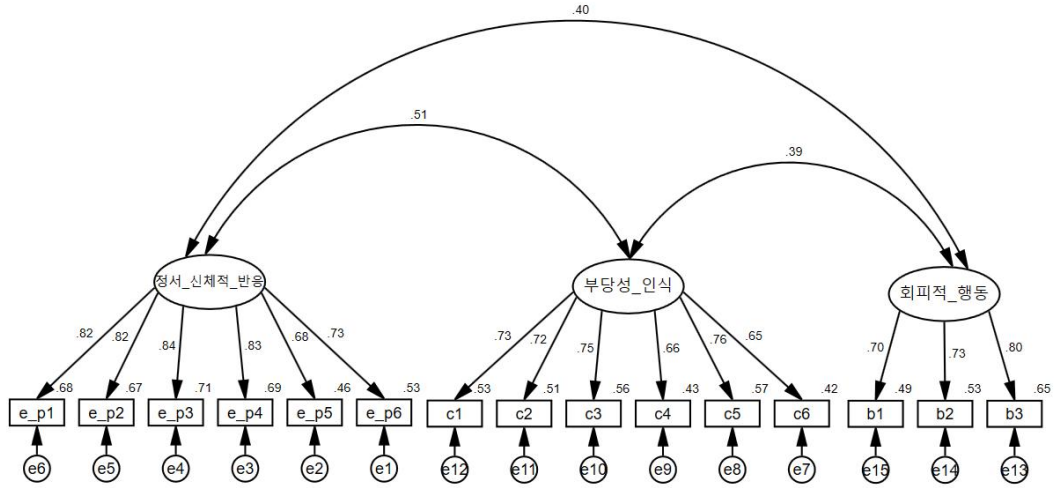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3요인 연구모형)

표 3. 수렴 및 변별타당도 분석 결과(N=307)

	총점	요인 1 (‘정서/신체적 반응’)	요인 2 (‘부당성 인식’)	요인 3 (‘회피적 행동’)
STAXI: 특성분노	.382**	.332**	.333**	.168**
STAXI: 상태분노	.478**	.482**	.333**	.224**
STAXI: 분노-억제	.464**	.373**	.303**	.455**
PANAS: 부정 정서	.684**	.631**	.475**	.448**
PANAS: 정적 정서	-.114*	-.192**	.054	-.133*

주. STAXI =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PANAS = 정적 및 부정 정서 척도.

\* $p < .05$ , \*\* $p < .01$ .

데, 이는 요인 3(‘회피적 행동’)이 분노 표현 중 억제를 적절하게 측정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억울 척도의 총점 및 3개의 하위 요인 모두 PANAS의 부정 정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억울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PANAS(정적 정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억울 척도의 총점, 요인 1(‘정서/신체적 반응’), 요인 3(‘회피적 행동’)과 유의한 부정 상관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요인 2(‘부당성 인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억울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 준거타당도 분석

억울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비교의 준거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화병 척도, 외상 후 율분장애 척도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억울 척도의 총점과 3개의 하위요인 모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억울 척도의 총점 및 3개의 하위요인 모두 화병 및 외상 후 율분장애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준거타당도 분석 결과(N=307)

	총점	요인 1 (정서/신체적 반응)	요인 2 (부당성 인식)	요인 3 (회피적 행동)
BJWS	-.423**	-.381**	-.362**	-.171**
화병	.831**	.855**	.562**	.384**
PTED	.719**	.646**	.562**	.392**

주. BJWS =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PTED = 외상 후 율분장애 자기 평가 척도.

\* $p < .05$ , \*\* $p < .01$ .

표 5. 증분타당도 분석 결과(N=307)

종속변인	예측변인	$\beta$	$t$	$R^2$	$\Delta R^2$	$F$
화병	STAXI: 상태 분노	.183	3.957***	.518	.518	108.330***
	STAXI: 특성 분노	.065	1.371			
	PANAS: 부적 정서	.580	12.047***			
	STAXI: 상태 분노	.047	1.309	.726	.209	200.525***
	STAXI: 특성 분노	.061	1.699			
	PANAS: 부적 정서	.199	4.524***			
억울	.649	15.189***				
PTED	STAXI: 상태 분노	.130	2.422*	.350	.350	54.445***
	STAXI: 특성 분노	.090	1.639			
	PANAS: 부적 정서	.468	8.374***			
	STAXI: 상태 분노	.002	.051	.534	.184	86.657***
	STAXI: 특성 분노	.086	1.847			
	PANAS: 부적 정서	.111	1.923			
억울	.609	10.929***				

주. STAXI =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PANAS =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 PTED = 외상 후 율분장애 자기 평가 척도.

\* $p < .05$ , \*\*\* $p < .001$ .

### 증분타당도 분석

억울 척도의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종속변인(화병과 외상 후 울분장애)에 대해 1단계에서는 STAXI의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 및 PANAS의 부적 정서를, 2단계에서는 억울 척도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화병의 경우 1단계에서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부적 정서가 51%의 설명량을 갖고, 2단계에서 투입한 억울 척도가 21%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상 후 울분장애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부적 정서가 35%의 설명량을 갖고, 2단계에서 투입한 억울 척도가 18%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화병과 외상 후 울분장애를 예측하는 데 있어,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부적 정서의 설명량 외에 억울 척도가 유의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 논 의

최근 20·30대 청년층에서 한국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시점에서(김나영, 2020; 김은하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억울 정서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7개의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요인(‘정서/신체적 반응’, ‘부당성 인식’, ‘회피적 행동’), 15개 문항의 억울 척도가 도출되었다. 요인 1(‘정서/신체적 반응’)은 억울과 관련한 복

합적인 정서(예. 우울, 무기력, 자신에 대한 연민)와 신체적인 반응(예. 눈물, 답답함)을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부당성 인식’)는 인지적으로 부당하다고 지각하는 상황(예. 부당하게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됨,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함,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받음)을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회피적 행동’)은 관계 악화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회피적인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를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억울 척도의 3요인 구조는 억울을 측정하는 척도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억울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먼저, 이승연(2015)의 연구에서 언급된 억울의 특성은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인지적 평가, 분노, 좌절, 무기력 등의 복합적인 정서, 답답함, 숨이 막힘과 같은 신체적 반응을 포함하는데, 이는 각각 요인 2(‘부당성 인식’), 요인 1(‘정서/신체적 반응’), 요인 3(‘회피적 행동’)과 유사하게 대응된다. 또한 억울 척도의 3요인 구조는 다른 기존 연구들에서 명시된 억울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는데, 가령, 서신화 등(2016)은 억울을 ‘자신의 경험을 부당하다고 지각하여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로 정의하였고, 한민, 류승아(2018)는 ‘자신이 경험한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혹은 ‘부당한 사건에 대한 분노’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억울 척도의 요인 2(‘부당성 인식’), 요인 1(‘정서/신체적 반응’)에 포함된 문항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와 더불어,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억울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미덕으로 여기는

감정회피나 억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억울 척도의 요인 3(‘회피적 행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서신화 등(2016)의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경우, 부당함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 억울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나 심리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희백(2015)의 연구에서는 자신을 ‘피해자 같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소통하지 못할 때 억울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억울 척도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연구들로 미루어볼 때, 억울은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어긋났다고 지각한 결과’로, 분노, 좌절, 배신감, 절망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가슴 답답함, 눈물 등의 신체적 반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억울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억울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참거나 회피할 때 나타나는 정서인 것으로 보인다(이승연, 2015). 이와 같이 억울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모두 지닌 다차원적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화병, 외상 후 율분장애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서이다. 이러한 억울이라는 정서가 한국 문화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정서는 아니지만, 한국 문화적 맥락과 상호작용하여 경험되고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억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억울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제)와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부적 정서, 정적 정서)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억울 척도의 총점과 각 요인은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의 세 요인과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의 부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의 정적 정서와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낮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억울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로, 억울이라는 감정이 슬픔, 좌절, 분노, 배신감 등의 부적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회피 혹은 억제하여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고영건, 안창일, 2003; 권정혜 등, 2008; 김은하 등, 2017; 서신화 등, 2016)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억울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화병 척도, 외상 후 율분장애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공정한 일을 경험할수록,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화병이나 외상 후 율분장애에 취약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이승연, 2015; 서신화 등, 2016) 그리고 화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핵심 감정 중 하나가 억울이라는 김은하 등(2015)의 사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억울 척도는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부적 정서를 통제한 후에도 화병과 외상 후 율분장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화병과 외상 후 율분장애를 예측하는데 있어 타당한 척도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억울 척도는 20·30대 청년들이 얼마



나 억울 정서를 경험하는지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양호한 신뢰도와 적절한 구성타당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준거타당도, 증분타당도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억울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한 첫 연구라 할 수 있다. 물론, 몇몇 연구에서 억울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억울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지만(서신화 등, 2016; 이승연, 2015), 억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억울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없고 이를 반영한 척도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억울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억울 연구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억울 척도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이 주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특성의 억울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면 억울에 대한 더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억울과 다른 인지 및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억울이 ‘부당함’이라는 인지적 평가와 관련이 있다는 논의는 있었지만(김은하 등, 2017), 억울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간의 상관을 살펴본 양적 연구는 없었다. 또한 억울이 화병이나 외상 후 울분장애의 원인이라는 사례 연구 및 질적 연구의 결과는 일부 보고되었지만(권정혜 등, 2008; 김은하, 김혜림, 2015; 이호진, 2009; 한민, 류승아, 2018), 양적으로 이 두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본 연구는 억울이 실제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특히 분노를 포함한 다른 부정 정서를 통제 한 후에도 화병과 외상 후 울분장애를 유의한 수준으로 예측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화병과 외상 후 울분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 억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상담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하는데, 가령,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억울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억울 수준을 탐색할 수 있다. 특히, 억울 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여 내담자가 어떤 차원의 억울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 목표와 상담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억울 척도의 요인 1(‘정서/신체적 반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내담자와의 상담 시, 상담자는 내담자가 억울 관련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억울이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담자가 자신, 타인, 및 관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인식 및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내담자의 신체적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음챙김, 심상 기법, 깊은 호흡법과 같은 개입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에 반해, 요인 2(‘부당성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내담자의 경우, 인지행동치료와 합리적정서행동치료의 A-B-C 모델을 적용하여, A(선행 사건), B(사건에 대한 믿음, 해석, 사고), C(결과)를 탐색하고 B의 유용성, 합리성에 대해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형성 및 강화시키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공정성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간과한다면 불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상황에 대해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차란희, 노안영, 2020). 더불어, 내담자의 요인 3(‘회피적 행동’)의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탐색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내담자의 욕구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대안적 행동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 행동 계획을 설정하고 모델링, 역할연습을 통해 내담자가 이러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억울 척도를 상담 현장 혹은 연구에서 사용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내담자의 억울을 초래한 ‘부당성 인식’을 무조건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이라고 간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공감하고 해당 사고의 유용성(예. ‘이러한 생각이 내담자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가?’, ‘이러한 생각이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효과적인가?’, ‘이러한 생각이 내담자의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는가?’)을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담자의 억울을 초래한 대인관계적 맥락과 환경적 요인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고 내담자가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억울 척도는 아직까지 한국의 일부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억울 수준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cutoff) 점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상담자나 연구자는 억울 척도를 평가나 진단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억울과 관련한 내담자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탐색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억울을 느끼

는 상황이 한 가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상황에 대해 억울 척도를 사용하여 억울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문항 수에 비해 표본 수가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30대 청년층이 느끼는 불공정성과 불평등이 팽배하다는 점(김나영, 2020; 김은하 등, 2018)을 고려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억울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실제로는 참여자 모집의 편의성으로 인해 설문제작과정에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남성 참여자에 비해 여성 참여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억울 척도에 여성의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거주 지역, 교육 수준, 직업,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더 다양한 20·30대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가슴 답답함이나 눈물을 흘림 등의 신체적 반응을 포함하는 문항을 포함시켰지만, 억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병의 신체적 증상(예. 치밀어 오름, 몽친 느낌, 두통, 입 마름)에 대한 문항은 제외되었다. 물론 억울은 한 유형의 정서를 의미하는 반면 화병은 억울이 쌓여 발현된 문화 증후군이라는 점에서 억울의 신체적 증상과 화병의 신체적 증상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억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적 정서(예. 배신감, 실망감, 서운함)를 반영한 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제거되어 최종적인 억울 척도에 포함되지 않았다(예. ‘나를 제

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느낀다’, ‘나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감정과 타인에 대한 감정을 구분하여 억울 관련 감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억울의 정서적 특성을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억울을 경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분노 표출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경우, 억울은 부당한 사건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끼지만, 여러 가지 이유(예. 집단주의 문화, 위계질서, 사회적 관계 혹은 역할)로 이를 표현하거나 해소하지 못해 경험하는 정서이다(한민, 류승아, 2018). 하지만, 일부 질적 연구에 따르면, 억울한 상황에서 동기가 강하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상대방에게 호소하거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신화 등, 2016).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억울과 관련한 행동적 특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요인들이 분노 억제 혹은 분노 표현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인들의 불공정성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억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마련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억울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특성을 지닌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척도를 개발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억울이 화병과 외상 후 울분장애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경험적 근거를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억울 척도가 억울과 관련한 요인

그리고 억울을 다루는 상담 개입 등과 같은 연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고영건, 안창일 (2003). 분노-억압 집단의 방어적 투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641-660.
- 고한석, 한창수, 채정호 (2014). 외상후 울분장애의 이해. *대안불안학회지*, 10(1), 3-10.
- 국립국어원 (2020). 표준국어대사전. [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에서 검색
- 구세준, 배성만, 현명호 (2011). 경험논문: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용서가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691-707.
- 권정혜, 김종우, 박동건, 이민수, 민성길, 권호인 (2008). 화병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237-252.
- 김나영 (2020). 공정성 인식이 주관적 계층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2018 서울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51(1), 1-27.
- 김민정, 현명호 (2010).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남성 화병 증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9-33.
- 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5), 25-45.
-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5), 689-710.

- 김은하, 김수용 (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1-22.
- 김은하, 김혜림 (2015).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화병간의 관계: 내외통제성을 통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6(5), 1-15.
- 김은하, 장윤지 (2015).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을 적용한 화병 사례 연구: 화병, 우울,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469-495.
- 김은하, 전주원 (2019).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에 따른 자존감, 우울,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계층차별주의 태도. *인간이해*, 40(1), 1-21.
- 김은하, 정보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점화가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가난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9(2), 323-342.
- 김재우 (2019). 한국인의 주관적 사회계층, 기회공정성 인식, 그리고 삶의 만족도: 성별·연령집단별 매개과정과 조절작용. *행정논총*, 57(4), 97-127.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닐슨코리아 (2017. 3. 8). 한국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사.  
<https://www.nielsen.com/kr/ko/press-releases/2017/press-release-20170309>에서 검색
- 박선경, 이내영 (2019). 누가 세대 간 계층이동의 비판 혹은 낙관하는가? *사회과학연구*, 27(1), 38-6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2), 45-76.
- 박희석 (2005). 우울집단을 위한 심리극의 주안공 경험 분석. *상담학연구*, 6(1), 11-28.
- 서수균, 이훈진, 권석만 (2004).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521-540.
- 서신화, 허태균, 한 민 (2016). 억울 경험의 과정과 특성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643-674.
- 손상준 (2007). 화병의 진단적 연구: 화병 진단에 유용한 증상의 판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신철민 (2012). 外傷後鬱憤障礙 尺度 한글版의 標準化 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오정현 (2020).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울분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울분장애(PTED) 자가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명순 (2019). 한국의 울분 연구 소개. *한국인간발달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15-37.
- 이경순, 김교현 (2000). 분노억제경향과 문제해결이 분노 정서 경험과 혈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60-72.
- 이승연 (2015). 억울함의 정서적 구성요소 탐색.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이장호, 김정희 (1989). 동양적 상담지도 이론 모형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 5-6.
- 이진수 (2019). 외상후 울분장애의 네트워크 분석 핵심증상 및 다른 정신장애와의 연계증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이호진 (2009). 스트레스 및 부당함 평가, 분노 대처행동이 중년기혼여성의 화병증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희백 (2015). 억울함의 핵심감정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동서정신과학*, 18(1), 15-33.
- 정재욱, 김영주, 김보경, 나진경 (2019).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정서와 반응의 문화차이: 한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3), 461-485.
- 조근호, 김지연, 최경순 (2009). 문화성향과 분노통제: 분노수준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69-90.
- 차란희, 노안영 (2020).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325-1345.
- 통계개발원 (2018). 한국의 사회동향 2018. 통계개발원.
- 한덕웅, 전경구,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한민, 류승아 (2018). 부당한 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의 문화 차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251-272.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상담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Comrey, A. L., & Lee, H. B. (1992).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stello, A., & Osborne, J.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0(7), 1-9.
- Dzuka, J., & Dalbert, C. (2002). Mental health and personality of Slovak unemployed adolescents: About the belief in a just world's impac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732-757.
- Hogarty, K., Hines, C., Kromrey, J., Ferron, J., & Mumford, K. (2005). The quality of factor solution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influence of sample size, communalities, and overdetermin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5(2), 202-226.
- Joe, S. H., Lee, J. S., Kim, S. Y., Won, S. H., Lim, J. S., & Ha, K. S. (2017).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and Hwa-byung in the general Korean population. *Psychiatry Investigation*, 14(4), 392-399.
- Kim, E. H., Hogge, I., Ji, P., Shim, Y., & Lothspeich, C. (2014). Hwa-byung among Korean women: Roles of self-esteem, gender-role attitudes, and family relationship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5, 495-511.
- Lee, J., Wachholtz, A., & Choi, K. (2014). A review of the Korean cultural syndrome Hwa-byung: Suggestions for theory and intervention. *Asia Taepyongyang Sangdam Yongu*, 4(1), 49-76.
- Linden, M. (2003). The posttraumatic embitterment

- disorder. *Psychother Psychosom*, 72, 195-202.
- Linden, M., Baumann, K., & Rotter, M. (2009). The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scale (PTED scale).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6(2), 139-147.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Min, S. K. (2009). Hwabyung in Korea: Culture and dynamic analysis. *World Cultural Psychiatry Research Review*, 4, 12-21.
- Min, S. K., Suh, S. Y., & Song, K. J. (2009). Symptoms to use for diagnostic criteria of Hwa-byung: An anger syndrome. *Psychiatry Investigation*, 6, 7-12.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McGraw-Hill.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s),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원 고 접 수 일 : 2020. 09. 25

수정원고접수일 : 2020. 11. 27

게 재 결 정 일 : 2020. 12. 17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ogul Scale for Younger Adults on their 20<sup>th</sup> and 30<sup>th</sup>

**Yeseul Jeon**

Ajou University / Masters' Degree

**Eunha Kim**

Ajou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Eogul scale.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review, 47 items that reflected the four characteristics of Eogul (i. e., cognitive, emotional, behavioral, and physical) were developed. Next,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ere conducted in a sample of adults on their 20s and 30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ogul scale should consist of 15 items, 3 factors (Emotional/Physical Reactions, Unjust Beliefs, and Avoidant Behaviors). In addition, the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oncurrent validity tests revealed that the Eogul scal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Hwa-byung Scale, and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Finally, through the increment validity test, the Eogul scale was found to add to the predictor of criterion variables (Hwa-byung,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above state-trait anger and negative affect.

*Key words* : Eogul, Eogul Scale,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Reliability